

진도군, 10억원 투입 동물보호센터 신축한다

진도읍 도외리 일원 기존 센터 철거 후 총 10억원 투입 전체면적 330㎡, 지상 1층 규모...2025년 준공 목표

진도군이 진도읍 도외리 일원에 동물보호센터 신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현재 약 30마리의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존 시설의 노후화와 좁은 공간에 점점 늘어나는 유실·유기동물로 인해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신축 동물보호센터는 기존 보호센터를 철거하고 유실·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비 총 1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반려·유기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알맞은 보호관리와 질병

관리로 동물복지 실현을 기대한다. 군은 견사 뿐만 아니라 묘사를 포함한 보호 시설(사육실)과 진료실, 입양실 등 유실·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진료업무와 입양 상담까지 할 수 있는 복합 동물보호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기존 진도개테마파크 부지 내 동물보호센터 신축으로 지역 주민과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시설이 완공되면 군 지역 운영을 통해 동물의 복지와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유실·유기동물의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



유실·유기동물의 나이와 특징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도=조상용기자

장흥군,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20만원

장흥군은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신청은 올해 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가 지원된다. 신청방법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은 월세지원 신청서, 신분증,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청약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청년들과 사회초년생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지긋지긋 섬 가뭄 끝나나' 완도 보길·노화 급수공급망 구축

679억 투입...육상·해저 관로 31.8km 설치

고질적인 가뭄 피해지역인 완도 보길도와 노화도에 해저관로를 포함한 대규모 급수 공급망이 설치된다. 완도군은 14일 한국수자원공사와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최근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에서 비상 공급망 구축사업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완도군 보길(노화) 급수 구역 비상 공급망 구축 사업'은 상시 가뭄 지역인 보길·노화도의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 679억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다. 광역 상수도 해남 분기점에서 노화읍까지 상수 관로 31.8km(육상 관로 21.9km, 해저 관로 9.9km), 배수지 1개소, 가압장 2개소 등 시설 용

량 1000㎥/일의 시설을 설치한다. 완도군과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완도군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설계와 공사를 추진한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저 관로를 통해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면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 등 도서지역 용수 공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



결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해남군 '황토기운 느끼며 걸어요' 맨발산책로 개통 우슬체육관 크로스컨트리장 1km

해남군에 황토 맨발 산책길이 조성됐다. 산책로는 해남읍 해리의 해남군 보건소 뒷편 우슬저수지에서부터 시작해 우슬체육공원 내 우슬체육관까지 이어진 길이다. 기존 크로스컨트리장을 리모델링해 약 1km 길이의 황토길을 조성했다. 황토길 한쪽에는 아자매트를 깔아 신발을 신고도 산책할 수 있으며, 발을 닦는 세족장과 신발을 보관할 수 있는 신발장도 마련했다. 새로 조성된 황토길은 기존에도 우슬체육공원에서 훈련하고 있는 전문 운동인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의 산책로로도 사랑받던 공간으로, 맨발 산책로가 조성됨으로써 최근 늘고 있는 맨발 걷기 동호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맨발걷기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점에 해남군에서도 맨발 산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게 되어 의미있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강진군 쌀귀리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 워크숍 성황

생산능가·가공업체 60여명 대상...운영 활성화 협의



강진군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이 지난 7일 강진 K스테이호텔에서 강진쌀귀리 쌀귀리 생산능가, 가공업체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통합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쌀귀리 농촌융복합산업화사업단을 중심으로 쌀귀리 재배 농가와 가공업체, 강진·도암농협 등 분야별 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강진쌀귀리사업단의 사업 및 올해 사업추진 계획 설명, 농촌융복합산업의 이해와 사업주체 간 협력방안에 대한 강연, 질의응답, 분과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별 토론에서는 강진쌀귀리 농촌융복합지구에 대한 SWOT 분석 및 토론을 통해 앞으로 사업단의 추진방향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이 낸 종합의견에 기회 및 강점으

로 일자리 창출, 지역인구 증가를, 위협으로 장거리 운송 시 유통비 증가, 수확기가 늦어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온라인 판매처 및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경쟁력 강화가 요구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번 워크숍은 쌀귀리 1, 2, 3차 분야별 중사자가 참석,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처음 마련된 자리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질의응답이 이어져 강진군 쌀귀리에 대한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강진 쌀귀리 사업단과 함께 쌀귀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역량강화교육, 선진지 벤치마킹, 다양한 쌀귀리 가공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진=김영일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